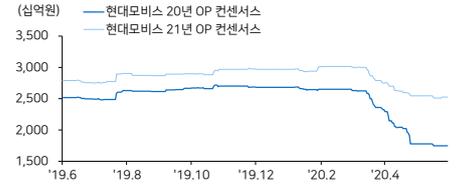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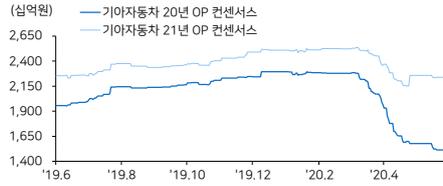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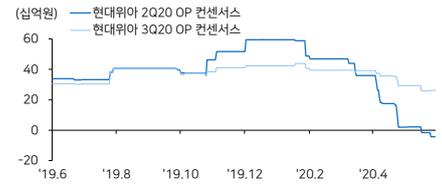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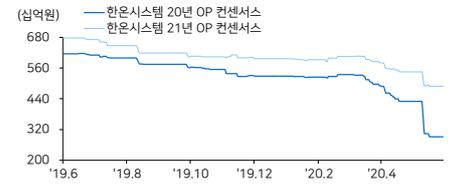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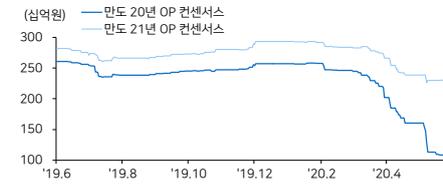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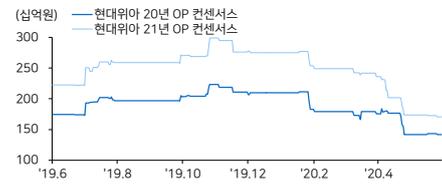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이번에는 한화와 전기차 사업 협력 (조선비즈)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번에는 한화그룹과 손을 잡고, 전기차 배터리를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ESS)처럼 사용하는 사업을 함께 펼치자는 것. 간접적으로 자동차의 배터리를 가정용 ESS로 활용을 전력을 재판매하는 사업 모델까지 포괄. <https://bit.ly/361Tm50D>

현대차, 인도 첸나이 공장 가동 재개 후 5월 차량 5000대 수출 (글로벌이코노믹)

현대차가 인도 첸나이 5월 8일 공장을 재개한 뒤 5월 중 5000대 이상의 수출. 현대차 인도 CEO는 조업 정상화를 향한 출발을 앞두고 현대가 국산차와 및 경기회복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 <https://bit.ly/2TTqLc3>

한신형, 한은시스템 신용등급 전망 '안정'→'부정적' 하향 (연합뉴스)

한국신용평가는 한은시스템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 'AA'인 한은시스템은 유지. 투자 증가와 M&A 자금 수요로 재무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전량 수요 위축에 따른 실적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https://bit.ly/3619hUy>

'구조조정' 세계 자동차 업체, 전기차 투자는 계속 (부산일보)

코로나19 충격에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강원, 공장폐쇄 등의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고 있음. 이들은 이렇게 비용을 줄이는 대신 전기차 등 미래차 투자는 계속한다는 방침. <https://bit.ly/3gf3fJc>

현대·기아 '순수 전기차' 내년 5~6종 내놓는다 (조선일보)

현대·기아차가 내년부터 2년간 최대 9종의 신형 전기차 모델을 국내 출시할 계획. 모두 순수 전기차(EV)로, 현대·기아차가 2011년부터 10년간 국내에서 출시해 온 EV 모델 전체 차종 수(7종)보다 많음. <https://bit.ly/2Ar1IMl>

온라인 힙주는 현대차 등 車업계... '포스트 코로나' 과제는 (아시아타임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자동차 판매방식이 온라인으로 전격적인 전환이 이뤄질지 조미의 관심이 떠오름. 현대차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온라인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영업직 축소'라는 새로운 과제도 급부상. <https://bit.ly/3eCwFq5>

공장이 멈췄다... 역대급 생산 차질로 자동차 업계 '비상'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여파로 공장이 멈추고 있음.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생산 차질로 노동집약적 산업인 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에서부터 부품업체로 연쇄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 <https://bit.ly/2Xi8Ca0>

중국 지리자동차, 홍콩 증시에서 8억3600만 달러 자금 조달 (글로벌이코노믹)

지리는 홍콩에서 신주 발행으로 8억36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 자동차 수요 위축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비추어 회사는 재정을 강화하고 사업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 <https://bit.ly/3gfFu9d>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